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통향

경제 통향

기획특집



이강욱 대표님

세월은 빠르게 흘러가는 데....

Newsletter를 사랑하는 KC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여름은 유난히 무더웠고 열대야로 잠 못 이룬 밤이 많았던 긴 여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엇그제 많은 피해를 안기고 간 짧으면서도 바람이 강했던 제7호 태풍인 "곤파스"로 인해 더위는 좀 누그러진 것 같은데, 피해복구 마무리가 되기도 전에 또 다른 태풍 "말로"가 오고 있다니 피해 없도록 단단히 준비들 하셔야 될 것 같네요.

Newsletter 게재 제의를 받고 펜을 들고 보니 그 동안 KC와 함께한 지난날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갑니다.

저는, 회장님이 창업하시고 얼마 되지 않았던 1978년 봄 패기 넘치는 20대 중반에 한국코트렐공업(주)로 입사해서 현재의 KC green holdings 로 3번의 회사명이 바뀌고 외형적으로 수백 배 정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며 global 기업으로 변모해 오는 가운데 저 또한 30여 년의 세월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중년이 된 지금 이렇게 지난 일들을 정리하면서 되돌아보게 되는군요.

본사의 설계실, 자재구매 업무를 시작으로 안성공장 부지정리, 인천공장에서의 보령화력1,2호기 외 전기집진장치 기자재 제작,검사,납품을 총괄하는 생산/품질관리과장, 현장소장, 영업, 구매, 기술부서의부서장, 해외지사장, 분진처리사업본부장을 끝으로 2001년3월 대기분야에 한정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사업의 다각화 차원에서 진출한 여수의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KC환경서비스 의 주재임원을 시작으로 오늘에 KC한미산업 대표이사에 이르기까지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새로운 도전이 많았고 그에 따라 환경설비 및 폐기물처리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더불어 서로에 믿음이 오늘날 제가 이런 자리에 있게 된 동기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항상 진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현장 중심의 운영기반 위에 직원들과의 소통을 중요시 해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KC 가족 여러분 !

주어진 업무에 왜 내가라는 불만의 자문보다는 새로운 도전에 기회를 준 회사에 감사 하고, 최선을 다해서 소화하고 나면 그것이 바로 사회생활에 밑거름인 좋은 경험을 얻는다는 것 잊지 마시고 항상 긍정적인 사고와 자기계발에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직장인, 즐거운 직장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끝으로 함께 공유하고 싶은 좋은 글이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켄터키 프라이드치킨을 세운 전설적 인물 커널 샌더스(할렌 샌더스)이야기입니다. 그는63세 때 숙박업 및 식당을 운영해 오던 중 많은 돈을 받고 사업을 넘길 것을 제의 받았으나 아직 은퇴할 생각은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2년 후. 주정부에서 그의 사업장을 우회하는 새로운 간선도로 건설로 인하여 1년도 되지 않아 할렌 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65세에 완전히 파산을 하게 되었고, 사업을 망치게 한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었으나 그는 그러하지 않았다. 할렌은 피해자가 되는 것 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쪽을 택했다. 그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은 치킨을 요리하는 일이고 누군가가 그 지식을 필요로 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아내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아이디어를 팔기 위해 고물차에 실은 압력조리기와 자기만의 특별조리법을 가지고 길을 떠났다. 힘든 길이었고 모든 식당들이 그의 제의를 거절했고 1,009번의 거절당한 후에야 그의 꿈을 믿어주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몇 년 후 할렌은 식당을 열었고 이 식당은 전 세계에 산재한 수 천 개의 지점의 시초가 되었다. 그는 나이나 사업의 실패를 이유로 포기하지 않았고 거절당하면 다른 곳에 가서 또 요구했습니다. 63세 노인도 이런 투자가 있었고 될 때까지 도전했던 것입니다.

될 때까지, 할 때까지, 이를 때까지..... <-성공 철학 중에서->

CONTENTS

인사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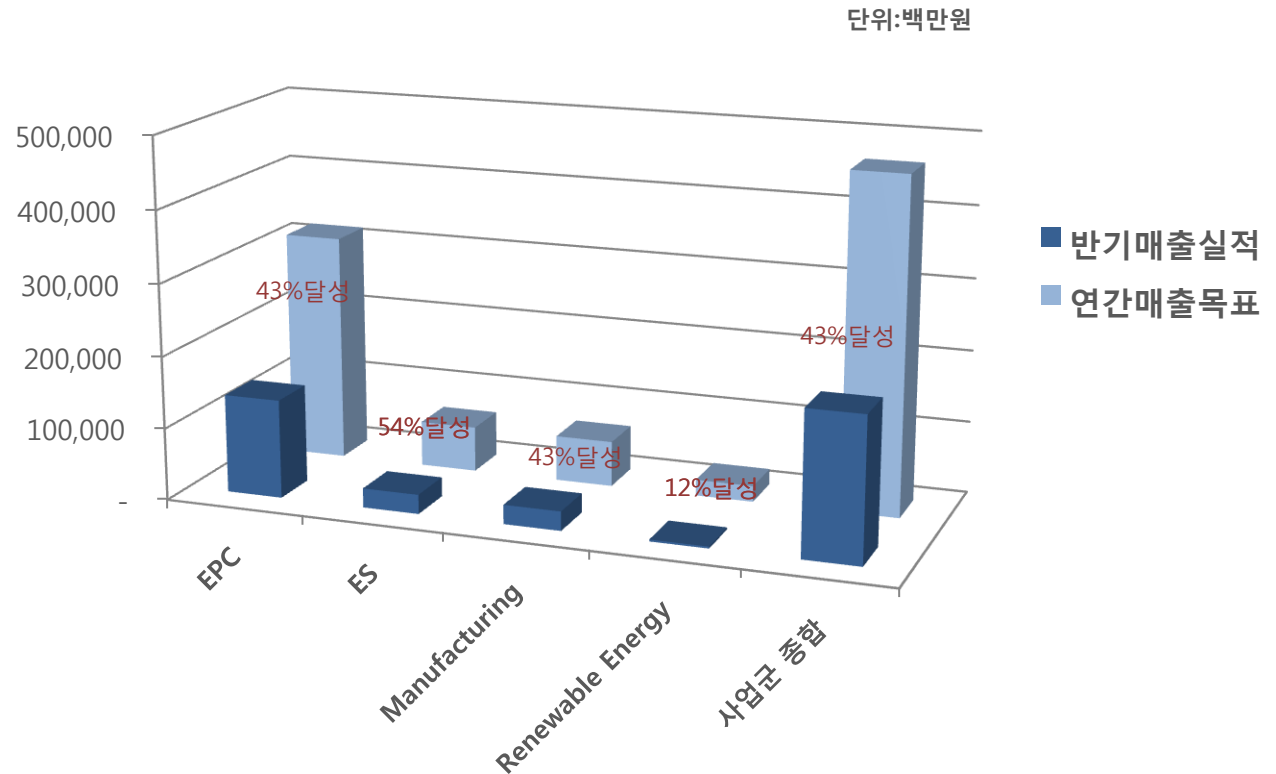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KC네트워크] 각 Division 반기 매출실적



KC코트렐 지원팀 김현주
(hyunjoo@kcgreenholdings.com)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Nol-Tec Systems]

미국 소재 엔지니어링회사 Nol-Tec Systems, Inc,
KC그린홀딩스 자회사 편입

지난 8월 30일, KC그린홀딩스는 미국 미네소타 소재의 엔지니어링회사 Nol-Tec Systems의 주식(53%)을 획득하고 미국의 Lodge Cottrell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협약하였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Nol-Tec Systems의 유압식 재료운반기술로 구축한 미국 전역의 네트워크와 Lodge Cottrell의 발전소와 보일러 시장에서의 과거 수주경험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Nol-Tec Systems의 대표이사인 Wayne Johnson 은 'KC그린홀딩스와의 관계를 통해서 Nol-Tec Systems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이 필요한 Sorb-N-Ject 대기오염 상품의 시장확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제시장의 활발한 진입과 더불어 고객들에게 탁월한 대기오염방지 상품의 하나로 자리 잡아 회사의 성장에 장기적으로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습니다.

Nol-Tec Systems 의 최대 주주가 된 KC그린홀딩스의 이태영사장님 또한 'Nol-Tec Systems과의 관계를 통하여 미국 전역에서 Lodge Cottrell의 제품과 서비스가 비약적으로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Nol-Tec Systems 소개자료 KC네트워크 업무게시판 참조

KC그린홀딩스 기획팀 왕정일
(jungil@kcgreenholdings.com)



The graphic features a world map background with puzzle pieces. Two silhouettes of men in business suits are shaking hands in the center. The text is arranged in a formal announcement style.

Nol-Tec Systems & Lodge Cottrell
announce their
Partnership
to handle
Air Pollution
Control Requirements
in
North America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Jerry C. VanDerWerff National Sales Manager Sorb-N-Ject™ Technology Nol-Tec Systems, Inc. Ph 651-780-8600 ext. 206 Cell 651-303-4056 JerryVanDerWerff@nol-tec.com	Michael J. Widico VP Business Development Air Pollution Control Systems Lodge Cottrell Inc. Ph 218-465-9498 Cell 908-304-2004 mjw@lodgecottrell.com
--	--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KC Cottrell] 포스코패밀리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

포스코는 지난 8월 18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패밀리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KC코트렐(주)은 설비부문 2차 협력사로 이태영 사장님이 참석하였으며, 협력사는 (주)덕신 산업 서수용 상무가 동행했습니다.

포스코가 3T'를 포스코패밀리 차원의 상생협력 모토로 삼고, 중소기업과의 상생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3T란 Trust(상호신뢰), Together(동반성장), Tomorrow(미래지향) 세 가지를 뜻하는 용어로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이해관계자와의 동반성장을 통해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포스코는 3T를 모토로 기존 1차 협력 중소기업은 물론 2·3·4차 협력 중소기업까지 포괄하는 산업생태계 차원의 상생협력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번 협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준양 회장을 비롯해 포스코건설 등 12개 출자사 사장, 1·2차 협력 중소기업 대표와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선중소기업청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정병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장지중 중소기업연구원장 등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3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협약식은 포스코 및 출자사와 1차 거래 협력기업 대표가 협약을 맺고, 다시 1차 협력기업 대표가 2차 거래 협력기업 대표와 자율적으로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포스코 및 출자사와 협약을 맺은 1차 협력기업은 1만 5150개사로, 이 가운데 298개사가 2차 협력기업 1만 1783개사와 협약을 맺어, 모두 2만 6933개사가 협약에 참여했습니다.

포스코는 이번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통해 협력 중소기업과의 자율적인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상생협력 지원을 바탕으로 상호 경쟁력을 높이고 동반성장을 추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서	
<p>KC코트렐(주)은 비즈니스파트너인 (주)덕신산업(이하 "협력사"라 한다)와 거래를 함에 있어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다.</p> <p>제1조 (목적) 이 협약은 KC코트렐과 협력사간의 거래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p> <p>제2조 (정의) ① KC코트렐과 2차 협력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생협력을 위하여 "비즈니스거래 공정화 관련 법규(이하 "비즈니스거래 관련 법규"라 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상설로 준수한다.</p> <p>② 이 협약은 KC코트렐과 협력사간 대등한 거래에서의 거래를 정지시키고 협력사의 이익을 강화하여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상호 인식하며, 본 협약 위반을 이유로 상대방 회사 또는 임직원에게 인위적 인 제재 또는 행정소송이나 조정신청 등 법적 분쟁 절차를 제기할 수 있음을 합의한다.</p> <p>제3조 (공정한 거래 등의 보장) KC코트렐(주)과 협력사는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p> <p>① 공정한 계약의 체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약체결 및 변경시 사전계약서 교부(주도발주 금지) 2. 합리적인 단가인정 방식에 의한 거래대금의 결정 3. 원자재가격 인상, 환율변동 및 물가인상 요소 반영 등 합리적인 단가산정요청사항에 의한 거래대금의 결정 및 조정(납품대금 조율방법 및 절차 도출) 4. 부당한 감액행위의 금지 등 <p>② 공정한 협회사 선정 / 운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협력사 선정(등록) 및 비즈니스 파트너 선정·유지·관리·평가 2. 협력사 선정(등록) 및 비즈니스, 절차, 결과의 공개 3. 등록업체에 준하는 입찰참가자격 부여 <p>③ 불공정 거래의 사전예방 및 발생방지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p>	
<p>- 구비난이 심각한 자재에 대하여 협력사에 원가정보 제공</p> <p>④ 선급금 지급 : 원·합주치의 선급금 지급 조건을 동일 시행</p> <p>⑤ 예납지급금 지급 : 예납지급금 지급</p> <p>⑥ 원가정보 제공 : (주)덕신산업</p> <p>⑦ 협력사 지원부서 설치 및 운영</p> <p>⑧ 상생협력 진단과 운영</p> <p>- 협력사 지원 및 상생협력 활동을 전담하기 위해 동부본 실무경험을 갖춘 중견직원을 선임하여 운영</p> <p>제5조(협력사의 준수사항)</p> <p>협력사는 KC코트렐과 상생협력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력사간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계약이행 ②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원가절감, 품질혁신 등 ③ KC코트렐의 윤리실천특별약관 준수 ④ 대금지급 조건 개선 등 2·3차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상생협력 추진 등 <p>제6조(협약의 효과)</p> <p>이 협약은 KC코트렐과 비즈니스 파트너가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p> <p>제7조(유효기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시 양방의 합의에 의해 협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p>제8조(기타)</p> <p>이 협약이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해서는 양방의 합의에 의한다.</p> <p>2010년 8월 18일</p> <p>KC코트렐 (주) (주) 덕신산업</p> <p>대표이사 이 태 영 대표이사 정 준 백</p> <p>이 태 영 정 준 백</p>	

KC코트렐 지원팀 김현주
(hyunjoo@kcgreenholdings.com)

관련 협약서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KC코트렐] 남부발전, Mantra사와 발전소 CO₂이용 `개미산` 제조 협약

KC코트렐은 한국남부발전과 캐나다 맨트라(MANTRA)사와 사업협약을 맺고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화학 대체물질인 '개미산(formic acid)'을 제조하는 기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맨트라는 KC코트렐을 통해 작년 10월에 서부발전에 공동 사업을 제안하였고,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사업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던 남부발전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남부발전은 하동화력발전소에 파일럿(시범) 설비를 설치, 1년간 기술 보안을 거친 후 2014년 준공되는 삼척그린파워 발전소에 하루 200t 규모의 상업용 개미산 제조시설을 지을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은 대기 오염의 주범이자 골칫덩어리였던 이산화탄소를 사업 아이템으로 바꾼 발상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기대되는 환경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개미산은 개미에서 발견된 천연물질로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 쉽게 분해되는 특성 때문에 섬유·가죽 염색제 등 유독성 화학물질을 대체하는 용도로 쓰인다. 지난해 전 세계 개미산 시장 규모는 10억달러에 달했다. 맨트라는 캐나다 벤처기업으로 이산화탄소를 전기분해해 개미산으로 전환하는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KC코트렐 지원팀 김현주
(hyunjoo@kcgreenholdings.com)



Mantra, Larry Kristof 사장, 남부발전 남호기 사장, 이태영 사장



최영희 전무, Mantra, Shawn Kim 부사장, Mantra, Larry Kristof 사장, 남부발전 남호기 사장, 이태영 사장 외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KC삼양정수] 필리핀 Petron 및 Taganito 프로젝트 수주

지난 8월 초 KC삼양정수는 대만의 Formosa Heavy Industries. Co. Ltd. 가 공히 발주한 필리핀 프로젝트 2건을 수주하였습니다.

첫번째는 RSFPP Petron Project-Water Treatment Package (Capacity: 850m3/hr)이며, 두 번째는 Taganito HPAL Power Plant Project (Capacity: 460m3/hr) 입니다.

발주처 인 Formosa Heavy Industries. Co. Ltd. 는 KC코트렐이 전기집진기, GSA설비 등을 납품했던 회사입니다. 동사 (KC 삼양정수) 는 지난 2010년 4월, 5월에 Formosa Heavy Industries 로부터 필리핀의 Petron 및 Taganito 지역에 설치될 발전소의 수/폐수처리 시스템 건적을 요청 받아 건적서를 제출, 이번 8월 초 수주 통보를 받았습 니다.

이번 수주는 주로 국내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수주했던 통상례와는 달리, 해외발전소 수주 경쟁에서 외국업체인 Formosa중공업이 직접 발주하는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성과를 거두었다는데 의의가 있는 프로젝트 건입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당사는 앞으로도 해외사업에 있어 더욱 경쟁력 있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C삼양정수 영업부 권성재 (simonkwon7@syws.com)



KC삼양정수 실적-여수호남화력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한전, '통 큰' 상생협력 선언

중기와 전진대회 개최 ... 하반기 5조 투입
수출화 기업 POOL 구성에 맞춤형 지원

한전(사장 김쌍수)이 중소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전력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한전은 27일 삼성동 본사 한빛홀에서 한전 김쌍수 사장을 비롯한 전력그룹사 사장단, 중소기업청 김동선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상생협력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한전 김쌍수 사장은 대회사를 통해 "전력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서로가 힘을 합쳐 세계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전은 수출화기업 POOL 및 스마트그리드 전담조직을 구성해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전력기술지원 기동반을 가동, 기술적인 문제도 적극 해결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청 김동선 청장은 축사를 통해 "국내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공기업과 대기업들이 나서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며, "공공부문 최초로 한전이 나서 중소기업 상생협력 전진대회를 개최하게 돼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다.

또한 "이러한 행사나 지원책들이 일회성에서 그치지 않길 바라며, 이를 기반으로 상생협력 정신이 더욱 굳건해짐으로써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한전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 촉진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전은 상반기 4조 5789억원에 이어 하반기 내 5조 2445억원을 투입, 중소기업에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한전의 브랜드 파워를 활용해 해외전력회사와의 기술교류 세미나 및 수출상담을 병행함으로써 수출효과를 극대화 한 수출촉진회를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협력과제 발굴 및 제품 개발에서 국내외 수주까지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출화 기업 POOL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전은 최근 수출화기업 POOL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을 모집했으며, 송배전 분야 136개, 발전 및 원자력 분야 144개 등 280개 중소기업을 선정했으며, 이날 행사에서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들 기업들은 향후 수출지원 사업에 대한 상시 정보 제공은 물론, 수출촉진회, 국내외 전시회, IEM(Inward Export Mission), 수출확산협의회 참가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기업별 상황에 맞게끔 그룹을 나눠 맞춤형 지원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수출사업에 대한 정보와 경험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바이어 정보 제공, 수출실무교육, 영문홈페이지 구축 등을 지원한다. 반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는 해외마케팅, 수출시범사업, IEM, 수출협의회 등 수출이 직접 이뤄질 수 있는 수출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전력신문 2010.8.27 [강원영 기자]



▲ 한전은 27일 삼성동 본사 한빛홀에서 '중소기업 상생협력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포스코플랜텍 - 친환경설비 전문회사 발돋움

일본 업체와 집진설비 MOU 포스코플랜텍(사장 조창환)이 집진설비의 기술력 강화를 위해 일본 전문업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포스코플랜텍은 8월 12일 일본의 여과집진기 전문업체인 신토코기오(新東工業)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집진설비의 엔지니어링 역량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포스코플랜텍은 이번 협약으로 5000루베(Nm³/min) 이상의 대형 집진설비의 기술력을 효율적으로 보강하고 국내외 친환경설비의 수주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희용 설계기술실장은 “최근 환경기준이 엄격해져 분진이 많이 나오는 시멘트 공장이나 제철소에서의 환경설비가 늘어나는 추세다. 집진설비뿐만 아니라 탈황·탈질 청정설비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해 친환경산업설비 전문회사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플랜텍이 8월 12일 집진설비의 기술력 강화를 위해 일본의 전문업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포스코 신문(8/19, 제832호)

외국철강사 인도시장 '투자 가속화'

인도-외국 철강사 간 제휴·협력 강화

과거 인도 철강산업은 수급이 균형을 이루거나 혹은 공급과잉 상태에 놓여 있어 외국 철강사들이 인도에 별다른 투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인도 철강사들의 기술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출하거나 하공정 분야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투자하는 등 소극적인 투자에 주력하였다.

하지만 인도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외국 철강사들이 인도시장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었고 철광석 가격이 폭등하면서 철광석 자원이 풍부한 인도의 장점이 급격히 부상하자 외국 철강사들은 그동안의 소극적 투자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인도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도-외국 철강사 간 제휴·협력 강화

인도시장 공략에 나선 대표적인 철강사 신일본제철이 타타스틸과의 기술협력 관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냉연공장 합작 방안을 추진 중이며, JFE 역시 기술지원에서 벗어나 직접 JSW스틸의 지분을 인수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스미토모금속은 부산스틸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고베제강의 경우 기존 합작선인 에싸르스틸 외에도 SAIL과 차세대 제철기술인 ITmk3을 기반으로 한 상공정 합작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 철강사가 인도 진출에 가속도를 내는 배경은 무엇보다도 인도 경제의 높은 성장성과 자동차 판매가 급진장한 데 있다.

인도 경제는 지난 2005 회계연도부터 2007 회계연도까지 3년간 9%가 넘는 성장률을 나타냈고, 글로벌 신용위기에 이은 유럽발 재정위기 속에서도 2008년 6.7%, 2009년 7.4%라는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또한 승용차 내수 판매의 경우 지난 2004 회계연도부터 2009 회계연도까지 연평균 12.9%, 즉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09 회계연도에는 무려 25.6%라는 높은 증가율을 시현하였다.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외국사와 기술협력 넘어 지분 인수·합작 투자 급증

이는 인도의 자동차 강판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도 의미하므로 철강사 입장에서 인도는 절대 놓칠 수 없는 시장인 것이다. 외국 철강사와 협력 확대... 경쟁구도 변화외국 철강사의 인도 공략이 가속되면서 기존 경쟁구도에 변화가 있을 조짐이다.

지금까지의 인도 철강사는 일반강 위주의 범용제품을 생산해왔으며, 오래된 설비와 소규모 설비로 인해 효율이 좋지 못한 데다, 환경오염 저감장치에 관심을 두지 않아 많은 공해를 유발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하지만 외국 철강사와의 제휴·합작으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먼저 합작선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해 고급강 분야가 강화될 전망이다.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토대로 대규모 설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경영효율성 또한 높아질 전망이다. 그리고 친환경 설비가 점차 도입되면서 공해를 유발하는 많은 소규모 생산설비가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외국 철강사가 상공정에 진출할 경우 기존 인도 철강사 간 경쟁체제에서 벗어나 외국 철강사가 참여한 다자 간 경쟁구도로 재편될 것이라는 점이 관심거리다.

이처럼 인도 철강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도 혹은 외국 철강사를 불문하고 경쟁에서 낙오하는 업체가 출현할 전망이다. 외국업체를 통해 효과적으로 기술 및 노하우를 체화한 인도 업체의 경쟁력은 강화되는 반면, 단기이익에만 집착해 실력 배양을 등한시한 인도 업체는 제휴·합작 관계가 어려워지면서 도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인도에 진출한 외국업체 또한 현지 경험을 소중히 하고 현지화에 성공한 기업은 인도 시장에서 생존하겠지만 본사 방침만 고집하면서 합작선인 인도 업체로부터 현지화 경험을 전수받는 데 실패한 기업은 성장이 힘들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인도 철강산업은 경쟁에서 도태된 업체를 대상으로 인수합병(M&A)이 가속될 공산이 큰데, 효율이 떨어지는 국유 철강사, 수직계열화 정도가 낮은 철강사, 자금력에 문제가 있는 철강사들이 주요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선점 이점 활용·현지화 노력 더욱 강화

선점 이점 활용·현지화 노력 더욱 강화현재 세계 질서는 새롭게 재편되는 과정에 있다는 의견이 많다. 기존 서구권 중심의 세계 구도가 향후에는 아시아권으로 중심이 이동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도의 중요성 또한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인도는 향후 20년 뒤 세계 4위 혹은 5위의 경제규모를 가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점이 가까워졌다는 우려가 깊은 중국의 철강수요에 비해 현재 인도의 1인당 철강수요가 불과 50kg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도 철강시장이 포스코가 성장하는 데 얼마나 큰 기회를 줄 것인가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인도내 다자 간 경쟁구조
도태기업들 M&A 주 대상

이런 점을 감안하여 포스코는 지난 2005년 남들보다 일찍 투자를 결정하고 지금까지 철강사업을 성공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문제는 이제 다른 기업들도 이러한 현실을 깨닫고 인도에서 벌어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포스코는 이들과의 격차를 유지하거나 더 벌리기 위해서는 그간 쌓아온 선점의 이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난 5년간 체득한 경험은 값진 자산이며, 향후 사업 전개과정에서도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리고 현지화에 많은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지에 진출하여 현지인을 가르치려는 자세도 중요하나 그들로부터 배우려는 자세 또한 매우 중요하다.

▷ 포스코 신문(9/2, 제834호)



GS칼텍스는 22일 단일 설비로는 국내 석유업계 최대인감압잔사유 수첨탈황분해시설(VHCR)을 준공했다. 총 2조6000억원이 투입된 이 설비는 시험운전을 거쳐 9월부터 상업생산을 시작한다. 사진은 전남 여수에 자리잡은 VHCR 전경



원자재 시장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열연] 각종 할인에 열연 출하價 '들쭉날쭉'

- 생산업체, 경기 부진 고려해 가격 탄력 적용

국내 열연가격이 실종됐다. 거래가격대가 각종 할인으로 넓게 벌어졌기 때문이다. 국내 열연코일 공급가격은 공식적으로 톤당 90만원. 그러나 각종 할인 등으로 미니밀제품의 경우 최저 생산자 공급가격은 톤당 80만원대 초반까지 하락했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설명이다. 반면 경기 호조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 가전용 일부 강종의 경우 90만원에 육박하고 있어 가격 차이가 강종별 제품별 가격차이가 5만원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사별 편차도 커져, 국내 열연 생산 3사의 공급가격은 치열한 경쟁으로 특별 할인 판매가 등장하면서 특정 시기 같은 강종 출하가격이 약 7만원까지 벌어지기도 하는 등 굴곡이 심하다.이렇게 된 이유는 경기 부진과 국제가격 하락 때문이다.

냉연의 경우 수출가격이 국내산 열연의 리스트 가격과 비슷한 수준인 700달러대 중반대로 하락했다. 결국 이들업체들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손실을 감수해야 할 상황에 몰린 것. 이러한 수요 산업 상황이 몇 달간 이어지면서 열연 공급사들도 공급가격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열연코일의 시장 가격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관련업계의 전망이다. (스틸데일리 08-27 기사요약)

[냉연] 포스코 냉연SSC 제품재고 "차고 넘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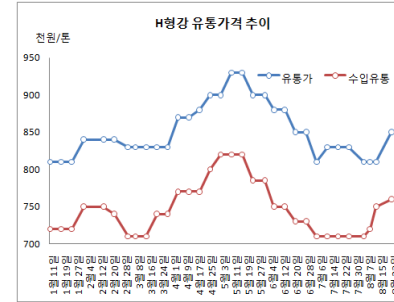
-포스코 냉연SSC 재고수준 약 3개월 넘어서

포스코 냉연스틸서비스센터(SSC)들의 냉연도금제품 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냉연SSC 들의 제품재고는 업체별 차이는 있지만 약 3개월 치를 넘어서고 있다. 포스코 냉연 SSC들의 적정재고는 1개월 에서 1.5개월로 평소보다 2배를 초과하고 있는 것. 포스코 냉연SSC들은 당초 8월에 입고하기로 한 포스코 베트남산 냉연강판(CR)도 절반수준만 이 달에 받고 나머지는 다음달에 받기로 미룬 상태이다

이러한 이유는 현재 자동차 연계물량을 제외하고 일반 유통물량 수급이 팍 막혀버렸기 때문이다. 시중에 포스코의 4분기 가격 인하설이 돌고, 유통시장에 저가 제품들이 판을 치면서 포스코 냉연 SSC들을 비롯한 유통 업체들의 판매가 바닥을 드러낸 상황이다. 판매는 안되고 있는데 공급받기로 예정된 물량은 계속 입고되면서 재고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 상황이 이러자 포스코에서도 비상이 걸린 상태이다. 포스코 냉연SSC 관계자는 "시황이 좀 더 살아날 것으로 기대했는데 9월이 다가오는데도 일반 유통시장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며 "만약 4분기 포스코가 가격을 인하한다면 재고까지 하락으로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스틸데일리 09-01 기사요약)

[형강] 시중 H형강 6일부터 추가 상승 기대

- 생산자 인상분 출하 6일부터 적용 될 듯..유통업체 추가 인상 계획



시중 H형강 가격이 6일부터 다시 한번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유통업체는 6일부터 출하가격을 추가로 3만원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국산 H형강 시장 유통가격은 톤당 84만원 수준이다. 6일부터 직송은 톤당 87만원 내외, 하 치장 출하는 톤당 톤당 88만원 이상에 출하한다는 것이 대형 유통업체들의 계획이다.

한편 유통업체는 지난 8월 중순 생산업체들의 출하가격 인상으로 톤당 3만원 가량 출하가격을 올린바 있어 약2주~3주 사이 톤당6만원 가량 오르게됐다. (스틸데일리 09-03기사요약)

[STS] 포스코, STS 가격 5.5% 올려...냉연 t당 382만원

- 니켈값 하락으로 유통가는 '관망'

포스코가 건축물 및 가전 외장재 등으로 사용되는 300계 스테인리스스틸(STS) 출하가격을 5.5%(t당 20만원) 인상했다. 포스코는 국내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 STS가격은 동결했지만 원가 압박이 심해져 9월 가격을 이같이 인상했다고 밝혔다.



포스코의 300계 STS 출하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STS 도매업체들은 9월 가격을 책정하는데 고심 중인데, 수요가 크게 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국제 니켈 가격까지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STS 1차 유통업체의 한 관계자는 향후 니켈 값의 추이가 국내 유통가격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스틸데일리 09-01기사 요약)

환율시장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9월 원달러 환율 1,170~1,220 원 전망

9월 환율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경기 우려와 정책 기대로 혼조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 경기의 상승 모멘텀 지속 여부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외 여건에 변화에 따른 수출모멘텀 유지가 확인되기 전까지 적극적인 원화 강세 배팅이 이뤄지기도 어려워 1100 원대 후반 중심의 매매공방이 예상된다. 경기 우려와 대책에 대한 기대, 엔화 강세, 유로존 불안 요인 등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가운데 대외의존도가 높은 원화도 이에 따른 변동성 장세가 예상된다.

달러/원 일간 Chart(by Reuters)



경기지표 둔화에 따른 더블딥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8 월말 버נק의장은 양적 완화 확대를 시사하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뚜렷한 대책이 나올 때까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와 대책에 대한 기대가 상충하며 해외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일본의 시장개입 가능성과 이를 타진해 보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엔매수 흐름도 엔크로스 환율을 통해 주요 환율의 변동성 확대 요인이다. 한편 9 월중 130 억 유로에 달하는 아일랜드 은행들의 정부보증 채권 차환, 프랑스, 스페인 등의 총파업 가능성 등 유로존 불안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7 월 경상흑자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58.8 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수출의 선전이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의 한국 채권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져 원화 강세 무드는 훼손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주요국 경기선행지수가 꺾이는 가운데 이에 따른 글로벌 교역규모의 감소가 어느 수준으로 진행될지 여부가 원화 흐름에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머징마켓의 경기 둔화 정도 및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해왔던 IT 경기의 상승 흐름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 적극적인 원화 강세 배팅은 자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부터 달러/원 환율의 흐름을 살펴보면 대외경기 및 금융시장 안정시 원화 강세는 다른 통화 대비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반면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경우 원화는 가치 상승 폭을 빠른 속도로 반납하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 월 이후 원화는 글로벌 증시 상승, 달러 약세 등에도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 싱가포르 달러 등 원화와 유사한 모멘텀(글로벌 경기, 중국 성장 등)으로 움직이는 통화에 비해 약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주요국 중에 한국의 경기선행지수가 가장 빨리 하강하기 시작했고, 세계경기 회복 둔화가 언제 한국 수출에 반영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외에도 정부의 환율 안정 의지, 울들어 외국인의 원화 강세 배팅의 성과가 좋지 않았다는 점 및 외국인의 원화자산 포지션에 대한 할리스크 부담 등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최근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의 원화채권 매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는 한국 채권시장의 위상 제고, 원화 저평가 인식에 따른 투자 수요, 글로벌 더블딥 우려에 따른 채권 매수, 외환보유액 다변화에 따른 원화채권수요 등이 그 배경으로 추측된다. 외국인의 원화채권 투자 확대는 환율에 하락재료이지만 주식과는 달리 채권투자자금의 환율 영향은 제한적이며, 중국 말레이시아 등 장기투자 성격의 자금은 원화 저평가를 활용하는 정도의 채권 투자에 나서고 있어 환율 급등을 제어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다.

9월 미달러는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기대로 미달러에 대한 하락압력이 예상된다. 하지만 양적 완화의 구체화에 대한 불확실성과 영국,일본 등의 양적완화 확대 동참 가능성 등이 달러에 지지력을 제공하고 유로존 불안요인도 미달러의 일방적 약세를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달러는 미국의 양적 완화 기대로 지지력이 예상되나 그리스, 아일랜드의 금융권 우려와 총파업 예정 등으로 1.30 달러를 저항선으로 한 제한적 상승이 예상된다. 달러/엔은 일본의 추가 양적 완화와 미국의 양적완화 확대 기대로 반등 시도가 예상되나, 경기 둔화 우려 지속, 유로존 악재부각 가능성 등이 달러/엔의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8 월 중 달러/원 환율은 대체로 1170 원 부근의 120 일선과 1200 원 부근의 60 일 이평선 사이에 갇힌 양상을 나타냈다. 최근 환율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주요 이평선들이 1180 원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다. 따라서 9 월 중에도 1180 원대를 중심으로 방향성 탐색을 위한 매매 공방이 예상되며, 거래범위는 1170~1220 원을 전망한다.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여기서 잠깐☘

[8월 환율정보의 신뢰성 파악]

8월 환율의 예상범위는 약 1,160~1,220원이었고 이는 비교적 신뢰성이 있었다. 8월 초반의 환율은 유로존 우려 완화와 실적 호조로 인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에 따라 1150원대 후반까지 빠졌다가, 8월 말로가면서 미국의 주택판매지표 악화 등에 따른 경제의 더블딥 우려가 짙어지며 1200원대를 넘어서기도 하였다. 또한 불안한 달러대신 상대적으로 안정된 통화인 엔화로 갈아타기 현상이 계속되면서 달러가치 하락을 부추겼다. 엔고현상의 원인에는 일본의 연속적인 경상흑자와 내수 시장의 활성화가 크게 작용하였다.

출처: 삼성선물 2010.08.31 9월전망

KC 그린홀딩스 유민정 (minjeong@kc-cottrell.com)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통향

경제 통향

기획특집

Nol-Tec Systems, Inc. 는?

NOL-TEC Systems Inc.(NTS)는 1983년 설립되어 Material Handling System을 설계·제작하여 공급하고 있는 회사로서, 2010년 8월부터 KC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또한 분체 및 입자형 물질에 대한 운반, 하역, 혼합 등 일체의 설비를 식품, 화학, 금속, 세라믹, 유리산업 등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 공급하는 세계적인 명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NTS는 2005년 이후 Sorbent를 이용한 건식탈황설비인 "Sorb-N-ject" 시스템을 개발하여 미국 내 발전소에 공급하고 있으며, 기존 LCI의 전기집진기 및 백필터 기술과 결합하여 건식탈황설비 및 전기집진기, 백필터 시장을 공동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업력 확대를 위해 Nol-Tec Europe(이태리), Nol-Tec Asia(싱가폴)를 설립하여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의 사업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산 제품에는 dense-phase and dilute-phase pneumatic conveying, pneumatic blending, dust collection, bulk bag handling, bulk storage and process control 과 첨가물을 첨가하여 De-Sox를 하는 sorbent injection systems이 대표적입니다.



생산제품



Nol-Tec systems 본사 전경